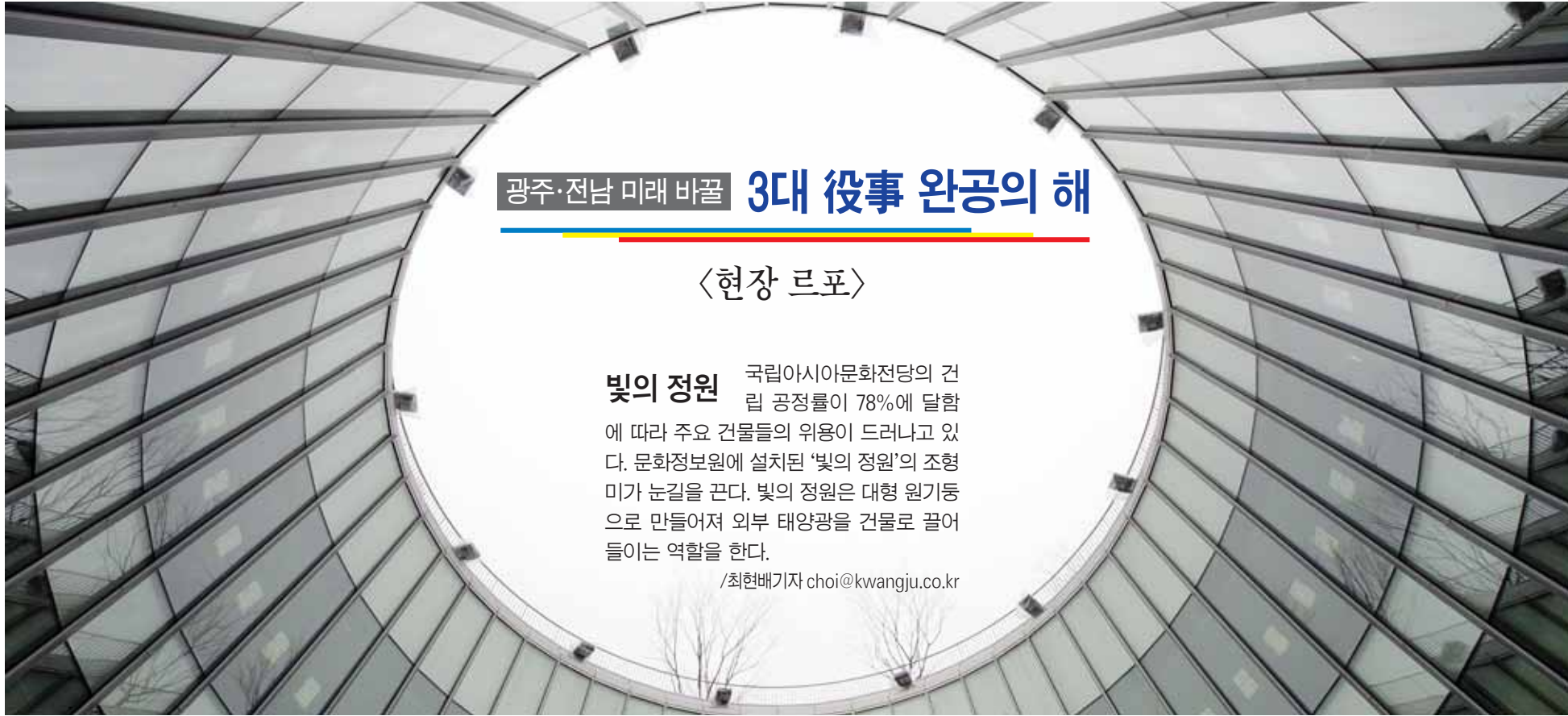


호남고속철도

아시아문화전당

나주혁신도시

대한민국 변방에서 아시아의 중심으로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완공의 해

<현장 르포>

빛의 정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공정률이 78%에 달함에 따라 주요 건물들의 위용이 드러나고 있다. 문화정보원에 설치된 '빛의 정원'의 조형미가 눈길을 끈다. 빛의 정원은 대형 원기둥으로 만들어져 외부 태양광을 건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빠름을 위해 "천천히" 지난 24일 전북 정읍역에서 광주방면으로 10km 떨어진 KTX 호남선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콘크리트 궤도 타설 공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1층 신사옥 지난 30일 나주시 빛가람도시 일대에서는 한국전력공사(맨 뒤쪽) 등 신사옥 건물 공사가 한창이었다.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되는 빛가람도시에는 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KTX 호남선 개통 1년 앞 콘크리트·궤도 공사 한창
올 12월 완전 개통... 광주~서울 93분 '만나질 생활권'

KTX 호남선 개통을 1년여 앞둔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전북 정읍역에서 광주 방향으로 10km 떨어진 구간에선 막바지 콘크리트 궤도 타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대나무처럼 곧게 뻗은 장대 레일은 인근 야산을 뚫고 솜바꼭질을 하듯 굽고 이어짐을 반복하며 남북의 축을 연결하고 있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인부가 "천천히, 천천히 부어. 반죽 잘 됐네"라고 말하자, 레미콘 차에선 경령이 다져놓은 바닥에 콘크리트를 쏟아냈다. 인부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평을 맞춰 콘크리트를 다졌다. 콘크리트 바닥엔 궤도를 받쳐주는 침목과 300mm 길이의 장대레일 등 철재 궤도가 설치된다.

타설 공사가 끝난 구간엔 높이 2m·너비 3m·길이 10m의 아치형 비닐하우스가 덮여졌다. 작업반장이 "스텝 보일러 작동해"라고 말하자, 비닐하우스 안은 열풍에서 땀이 배어나올 정도로 스텝 열기로 가득했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다음 온도·하중·충격 등 유해한 영향 받지 않도록 보호·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고안한 작업이었다. 공사 관계자 150명이던 머문터는 하루 평균 1km씩 궤도 작업을 하고 있는 대역사(大役事)의 현장은 활기가 넘쳤다.

오는 12월이면 충북 청원군 오송역~광주 송정역(총 연장 184.5km)의 KTX 호남선이 완전 개통된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80%이다. 2013년 7월 3일 최대 난공사였던 노령터널(길이 4.3km)이 관통되면서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총 예산 8조 6000억원 중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6조 4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에 올 상반기까지 궤도·전차선 배선·통신 및 신호 설비를 끝내고 하반기중 시운전을 한 뒤 올해 말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KTX 호남선이 개통되면 광주·서울 소요시간이 159분에서 93분으로 66분 줄어든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서울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되면서 광주도 '전국 만나질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광주·전남지역은 KTX가 정착하는 송정역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과 사회경제적 활동·문화 관광 등에서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경부선 개통 이후 전입자 대비 전출자 수가 4만2263명(2003년)에서 2만610명(지난해)으로 2만165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광주·전남지역도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로 혼잡 해소는 물론 물류 수송이 쉬워지면서 대불산단 등 서해안 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교육·의료·쇼핑 등 여러 부문에서 대구·부산 등에서 이미 발생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대구·부산 등에서 서울 집중도가 커지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 이병희(48) 궤도PM부장은 "내년 말 완전 개통 목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면 나후호남권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위용 드러낸 문화전당 5개원 건물...구도심 풍경 바뀌
오는 10월 건물 완공·내부시설 등 하드웨어 공정 마무리

'광주의 문화발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건립공사가 한창인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일원. 올해로 착공 9년째를 맞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현장은 어느때 보다 활기를 띄고 있었다.

이미 완성된 문화전당 5개원 건물은 옛 전남도청 일대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외벽을 마감해 모던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문화정보원 등 5개원의 주요 건물은 구도심의 새로운 풍경이 되고 있었다.

문화전당의 주요 건물은 지표면에서 지하 25m까지 파 내려가 주요 구조물을 지하에 배치한 공법으로 지어지고 있지만, 드넓게 조성된 야외 광장과 건물들은 문화전당이 지하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개방감을 줬다.

여느 공사현장과 달리 문화전당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주요 건물들이 모두 완성됐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신축건물 안에서 냉난방 시스템, 전기 설비, 전시공간 설치 등 내부마감 공사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현장 근로자들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문화전당 완공을 맞추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올해 착공 9년째인 문화전당의 현재 공정률은 78%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옛 도청 별관 철거논란으로 가장 늦게 착공(2011년)한 어린이문화원에서 급명간 내부 시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공사에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혁신도시 입주할 한전 등 공공기관 사옥 짓기 한창
3만 자족도시 건설... 기반시설·부지조성공사 완료

문화전당 건물이 완성됨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주요 건물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공연 무대인 아시아예술극장(2000석 규모)의 경우 객석 등을 통합적으로 조작하는 내부 시스템 공사가 한창이다. 이 작업은 가변(可變) 형태인 아시아예술극장의 객석의 방향·높낮이 등을 전자시스템으로 제어하는 핵심 공업이다. 객석좌석 배치 등이 자유롭게 설계돼 10여개의 패턴으로 무대를 바꿀 수 있다.

문화창조원의 복합전시관은 초대형 설치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천정까지 16m 높이를 구성하고 있다.

문화전당은 건축개념이 친환경으로 잡혀 있는 덕분에 곳곳에서는 태양열과 빛을 이용한 시설이 눈길을 끌었다. 문화창조원, 정보원 등 주요 건물들의 천정에 설치된 52개의 채광정(採光井)은 낮에는 빛을 끌어들이 실내를 밝히고 공기를 빨아들여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열과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스템도 설치돼 있다. 어린이문화원, 정보원, 창조원의 지붕은 시민 1만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야외 잔디광장으로 조성되고 있다.

창조원,정보원 건물 내부에는 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대나무 광장도 곳곳에 마련돼 있다. 문화전당 설계자인 우규승씨가 제시한 '빛의 숲'의 취지에 맞게 친환경적 건축철학을 따른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올 상반기까지 건물신축·내부시설 등 하드웨어 공정 전체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2015년 개관에 대비한 시운전에 들어갈 방침이다. 문화전당은 오는 2015년 7월께 개관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주해 나주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빛가람도시) 조성 공사가 한창인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대는 그야말로 '삼전벽해'였다. 서울 등지에서 옮겨오는 공공기관들이 최대 31층 높이의 신사옥을 짓는 등 한적했던 시골마을에 새로운 도시 건설이 한창이었다.

겨울철이라 요즘은 공사가 뜸한 편이지만 지난달 24일 한국전력이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기원하는 상량식을 여는 등 공공기관의 이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신사옥 공사를 마치고 '나주시대'를 연 뒤 최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도 이전을 완료했다.

또 올 상반기에 한국련전진흥원, 전과진흥원, 전과연구원,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사옥 공사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한전 등의 기관이 신사옥 공사를 끝낸다. 기존에 사용하던 서울 사옥이 팔리지 않아 나주혁신도시에 신사옥을 짓지 못했던 인터넷진흥원도 조만간 부지 매입 계약을 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분리된 농업수산기술평가원도 나주로의 이주를 본격화한다. 기반시설 공사도 마무리 단계였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100% 완료됐고, 조정공사와 신호등 공사 등은 남겨두고 있다.

주변 상업용지와 아파트 등도 조만간 입주를 시작하는 등 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빛가람도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투기 광풍도 불고 있었다.

이곳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신사옥이 준공되거나 착공하면

서 투자하려는 사람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분양을 마친 한 아파트는 평균 2.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평형대가 일찌감치 다 팔렸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 빛가람도시 곳곳에 아파트 분양과 상업용지 판매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나뉘어 있었다.

공공기관들이 속속 이주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빛가람도시 건설기간 중 8조574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 527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고, 건설 후에도 생산유발효과는 1조1133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761명에 달한다. 빛가람도시 조성 후 234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세종시 조성으로 충청 지역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 호남 인구를 추월했던 것처럼 빛가람도시에는 인구 유입 등 호남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부분 가족을 기존 지역에 남겨두는 '나 홀로 이주'에 머물고 있어 도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이진철 원장은 "이주 공공기관 직원들이 모두 가족을 데려오면 1만6000여명에 달하고, 인근 지역 이주만까지 합쳐 3만명 이상이 넘어야 이곳이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협력업체도 추가로 이주해 와야 혁신도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나주=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